

# Explor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of the Mentalization Questionnaire (MZQ) in 16–17-year-old Korean Adolescents

Hyunjoo Song<sup>1†</sup> Hyun-Ah Choi<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eutic Technology,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sup>2</sup>EunPyeong High School, Seoul,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mentalization in the adolescents who have various vulnerabilities. This study validated Hausberg et al.'s Mentalization Questionnaire (2012) in Korean adolescents. A total of 312 high school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wo groups for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The first group (N = 162) was used for the EFA and the second group (N = 150) was used for the CFA and validation procedures. Four factors were extracted through the EFA, and the 4-factors model showed acceptable model fit indexes. The final 4 factor model was partial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model.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 of the 4 subfactors showed better or similar levels as compared to those reported by Hausberg et al. (2012). The criterion validities were verified using the Empathy Questionnaire,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MET), and Executive Function Questionnaire. Emotional control difficulty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all mentalization factors, while empathy and RME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mentalization factors. In conclusion,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model and the original model might be partially attributed to the conceptual vagueness of mentalization and the cultural differences in emotional processing.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included the lack of a representative sample and insufficiency of variables in the criterion validation. Therefore, these results should be verified through further research. However, this study has value in that it is the first validation study on mentalization in the Korean population. It acts as a starting point in the assessment of Korean adolescents and the design of appropriate psychological interventions.

**Keywords:** mentalization, adolescents, self-report questionnaire, factor structure

‘정신화’는 마음 이론이나 공감과는 구분되는 상징을 근간으로 하는 인간 정신 활동을 설명하는 최근 개념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신분석과 애착이론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념으로 평가되고 있다(Cha & Kim, 2016). 정신화 개념은 영국 정신분석가인 Fonagy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Fonagy는 정신분석적 치료자들이 21세기 근거기반 심리치료 흐름에 맞추

어 보다 체계화된 방식으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Fonagy, 2003), 실제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에 초점을 둔 정신화 기반 심리치료(Mentalization Based Therapy; Bateman & Fonagy, 2003)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효과검증 연구를 통해 근거기반치료로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의 정신화 치료와 평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 Cha와 Kim(2016)의 고찰 논문과 청소년용 정신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Moon et al., 2012) 외에는 국내 KCI 등재 학술지에 실린 연구물 자체가 매우 적은 상태이다. 미출판 연구물 혹은 비 KCI 연구물로는 품행장애 청소년의 외상과 정신화 관계(Choi, 2014), 또래 괴롭힘과 정신화(Hwang & Song, 2015)와 자기에 성향과 정신화(Choi, 2016) 등에 대한 연구 등이 보고되었다.

†Correspondence to Hyunjoo Song, Graduate School for the Therapeutic Technology, Seoul Woman's University, 621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 E-mail: jayoo1004@swu.ac.kr

Received Mar 8, 2017; Revised Jul 13, 2017; Accepted Jul 18, 2017

This study was supported by Sabbatical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an's University (2013).

실제로 정신화 개념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현재까지의 정의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능력, 자신의 정신상태와 타인의 정신상태를 지각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을 감정, 신념, 바람과 충동과 같은 내적 정신상태를 가지고 기능하는 개체로 보는 능력(Fonagy, 2006, Fonagy & Bateman, 2006, Rossouw, 2012)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정신작용을 사용하여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화는 타인이 생각하고 있거나 느끼고 있는 것을 상상해야 하므로 전의식적이고 상상적인 정신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정신화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나 타인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Fonagy, 2006). 이러한 정신화 개념은 마음이론(Theory of Mind) 혹은 공감과 유사한 속성으로 설명되기도 하나 본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Fonagy와 Bateman(2006)은 정신화는 인지적 과정으로 정의된 마음이론과 달리 하나의 직관적이고 재빠른 정서 반응이며 절차적이고(procedural) 전의식적이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발달과정에서 지식이나 신념을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정서 상태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신화는 인지적 처리과정이기 보다는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정서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단 정신화가 이루어지면 정서 조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서 상태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뿐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게 된다.

Fonagy와 Bateman(2006)에 따르면 정신화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동등모드, 가장모드와 상징의 세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생각, 동기, 의도, 신념, 바람과 요구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상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상징은 현실을 하나의 표상으로 다루는 능력이며 어린 유아에게서는 발달되어 있지 않은 기능이다. 아주 어린 유아는 이런 기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동일하게 간주한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외부에도 존재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마음속에도 존재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정신적 동등모드(psychic equivalence mode)’와 함께 어린 유아는 자신의 내적 경험과 외부 현실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가장모드(pretend mode)’를 경험하게 된다(Fonagy & Target, 2003). 유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경우, 약 4세가 되면 아동은 이 두가지 모드를 통합해서 ‘정신화’ 혹은 ‘성찰’ 모드에 도달하게 된다. Fonagy와 Target(2003)에 의하면 이 단계에서 아동은 내부 현실과 외부 현실이 서로 완전히 동일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서로 분리된 것도 아닌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징 능력은 핵심 역

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를 다시 양육자와 유아의 관계속에서 정리하면, 양육자가 상황에 적절한 정서를 보여주며 미러링을 해주게 되면 아동은 내부 현실과 외부 현실을 자연스럽게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부모가 반복적인 정서 반영 미러링을 통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담아 주게 되면, 유아는 실제 현실과 표상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연합하는 기제를 학습하게 되면서 정신화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의 정신화를 살펴보면, 프로이트는 청소년 시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정신적 발달을 이루어 내야 하는 시기라고 표현하였다(Freud, 1905, Fonagy & Target, 2003에서 재인용). 양육자에게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동을 지나게 되면서 이전에는 허용되었던 것들이 금기되는 등 보다 성숙한 자아로서 수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 이차 개별화 시기인 사춘기 시기(Blos, 1962, Fonagy & Target, 2003에서 재인용)에 적절한 개별화를 성취하지 못한 청소년은 여러가지 정신병리를 나타낼 수 있다. 뇌 발달 측면에서도 청소년 시기는 생후 초기 5년과 비교할 만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뇌의 여러 영역 중 전두엽은 가장 늦게 까지 발달하는 영역으로 늦은 청소년 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이 진행된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는 개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두엽의 불균형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충동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Stortelder & Ploegmakers-Burg, 2010) 경우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공격행동으로 표출되기 쉬운 시기이다.

Fonagy(2004)는 공격행동을 초기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의 정신작용을 표상하는 능력이 발달되지 못하고 정신화가 손상되어서 나타난 결과로 설명하였다. 초기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은 불안이 유발되는 상황을 회피하는 전략을 발달하게 되고 이 결과로 정서 조절, 충동조절, 공감과 불안 인식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경험을 습득하지 못하게 된다(Derryberry & Rothbart, 1997). Fonagy와 Taubner(2002)는 이러한 현상을 ‘억제된 정신화’(inhibited mentalization)라고 표현하였다. 다른 연구(Taubner, Nolte, Luyten, & Fonagy, 2010, Taubner, & Curth, 2013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정신화 기술이 낮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보다 많은 외현문제를 나타냈다.

Fonagy 연구팀은 정신화기반치료(Mentalization-Based Treatment)의 청소년 버전을 개발하였고 의미있는 효과성 검증 연구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Rossouw와 Fonagy(2012)는 자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MBT-A와 일반적인 치료를 시행하여 비교한 결과, MBT-A가 청소년의 자해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정신화 향상과 애착 회피의 감소 및 성찰 능

력 향상이 자해 행동 감소에 효과를 미친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 있는 임상가들과의 쌍방향 작업을 통해 청소년 대상의 정신화 통합치료(Adolescence Mentalization Based Integrative Treatment, AMBIT) 매뉴얼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치료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치료기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Fuggle et al., 2015)

정신화 능력의 측정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화 개념 자체의 난해성으로 인해 부분적 결과들만 보고되고 있을 뿐 만족스러운 결과는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Fonagy와 Bateman(2006)은 정신화 평가의 주요 원칙으로 상황과 연관된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정신화의 평가는 정신화를 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관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통상 정신화를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George, Kaplan, & Main, 1985)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애착면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평정자가 요구되며 일대일 상황에서 일정 시간의 면담이 요구되는 등 적용에 제한이 많다(Fonagy et al., 2016). Cha와 Kim(2016)은 성찰 기능 척도를 통해 정신화 개념의 조작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Kemps와 Kooiman(2015)도 임상가들이 환자의 정신화 능력을 평가하는데 '성찰 기능 평정 척도(The Reflective Functioning Rating Scale)' 사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에 대한 환자 대상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결과, 평정자 간 신뢰도와 구성 타당도 및 준거 타당도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들은 성찰기능 척도의 임상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eaulieu-Pelletier, Bouchard와 Philippe(2013)는 정신상태 과제(The Mental States Task)를 개발하였는데 정서적 자극 이미지를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이 과정에서 인지와 정서 처리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일반 대학생 대상으로 영어 버전과 불어 버전에 대한 타당화가 실시되었는데 두 버전 모두에서 적절한 요인 구조를 얻었다. 요인구조는 6개로 구성되며, 단편적(concrete) 사고, 낮은 방어, 중간 방어, 객관성-합리성, 높은 방어와 성찰적 사고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척도는 실시가 쉽지 않으며 자신의 인지와 정서 처리 과정을 보고할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적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피험자에게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Fonagy와 동료 학자들을 통한 정신화 평가 도구 개발 연구는 최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8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차원의 정신화 척도를 발표하였으며(Fonagy et al., 2016), 이 척도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간략하게 정신화를 평가하는데 사용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정신화 척도는 현재 개발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Luyten & Fonagy, 2017).

이에 앞서 독일 연구자들인 Hausberg 등(2012)은 자기보고식 정신화 질문지를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구 목적은 심리치료를 통한 정신과 환자들의 정신화 변화를 평가하는데 임상가 평정뿐 아니라 자기보고 방식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질문지는 첫 단계에서 정신화 관련 문헌들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과 입원 환자와 낮병원 환자들의 진술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초기 질문지는 4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15문항이 추출되었으며 15문항은 총 4개 요인에 할당되었다. 4개 요인은 자기성찰 거부(Refusing self-reflection), 감정 자각(Emotional awareness), 정신동등모드(Psychic equivalence mode)와 정서 조절(Regulation of affect)로 명명되었다. 첫 번째로 자기성찰 거부 요인은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해 생각하기를 회피하거나 감정에 압도되는 것이 두려워서 감정을 차단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다소 미성숙하고 단편적인 태도와 관련된다. 두 번째로 감정 자각 요인은 이를 실패했을 때 자신의 내적 상태를 지각하거나 변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인인 정신동등모드는 내적 상태와 외부 현실을 모두 동일하게 실제로 지각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태도의 결과로 어떤 행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관계 표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관계를 융통성있게 지각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 네 번째 요인은 정서 조절 요인으로, 정서 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자해 환자와 자살 시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등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화 개념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이들의 요인구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Hausberg 등(2012)이 제시한 요인구조가 후속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표본 크기가 100명이며 표본이 정서장애 환자(54%)와 성격장애(19%) 환자로 구성되어 표본자체가 동질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이들의 요인 구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신화 질문지는 최초의 자기보고식 정신화 질문지이며 경계성 장애, 자해, 자살 시도와 불안정 애착 집단을 대상으로 임상적 타당도가 입증되었다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초기 발달 과정에서 양육자와의 불안정 애착의 결과로 정신적 동



등모드와 가장 모드를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적절한 정신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청소년은 정서 조절, 충동조절과 공격성뿐 아니라 정신과적 장애에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미 정신화는 다양한 심리치료적 개입에 주요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치료 개입방안으로 활용되는 것뿐 아니라 정신화 능력 향상이 심리치료 효과의 측정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Hausberg et al., 2012)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근거기반 심리치료와 심리평가에 대한 강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전통적인 역동적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무의식과 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치료 효과를 제시하는 것의 어려움을 경험해 왔다. 정신화 개념은 정신분석적 심리치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소시켜줄 대안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정신화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사춘기 청소년의 전반적인 적응과 충동 조절 및 자살 및 약물 문제 등에 대한 개입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춘기 이후 초기 청년기의 심각한 정신장애를 예측하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초의 자기보고식 정신화 평가도구인 Hausberg 등(2012)의 정신화 척도에 대한 국내 청소년 대상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화 개념은 정신분석과 애착이론을 최근 근거기반 평가 및 치료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제시한 개념이다. 정신화 개념에는 정서과 전의식적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문화적 영향을 뚜렷하게 받는 변인들이므로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에 대한 국내 표본 대상의 요인구조 탐색과 확인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Song과 An(2017)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아시아권인 한국과 중국 아동에서도 주관적 정서처리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문화적 영향을 뚜렷하게 받는 정신화 변인에 대한 국내 표본 대상의 요인구조 탐색과 확인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 결과는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정신화에 대한 국내 연구를 촉진하고 청소년 대상 치료와 평가에 보다 활발히 적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 방 법

### 연구대상자

본 연구 대상은 서울강북지역 인문계 E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3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불성실 응답자 12명의 자료가 자료 코딩 이전에 배제되었으며 전체 설문 중 한 두 문항을 빠뜨린 6명의 자료를 추가로 배제하여 총 312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최종 자료는 고등학교 1학년 159명과 고등학교 2학년 153명이었으며 남녀 비율

은 고등학교 1학년은 남학생 83명(52.2%), 여학생 76명(47.8%)이었으며 고등학교 2학년은 남학생 77명(50.3%)과 여학생 76명(49.7%)이었다. 설문은 학교내 전문 상담사 지도하에 실시되었으며 설문 이전에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 평가 도구

정신화 질문지(Mentalization Questionnaire, MZQ)

Hausberg 등(2012)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영문판 정신화 질문지(MZQ)의 번역은 먼저 교신저자인 Hausberg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였다(2014년 4월). 번역은 연구자들이 일차 번역을 실시한 후에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1인에 의해 수정 번역과 역 번역이 실시되었다. 최종 점검 단계에서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 포함되어 있는지 고등학생(15명 내외)을 대상으로 확인하여 특별히 이해에 어려운 질문은 없다는 피드백을 얻었다.

총 15개 문항으로 자기성찰 거부(refusing self-reflection), 감정 자각(emotional awareness), 정신동등모드(psychic equivalence mode), 정서 조절(regulation of affect) 등의 정신화와 관련된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점(동의한다) 평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정신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Hausberg 등(2012)의 연구에서는 두 개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두 표본 모두에서 .81이었고 하위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표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본 1 (45명의 정신과 입원 환자와 52명의 외래 환자, 총 97명)에서 자기성찰거부 요인은 .71, 감정 자각은 .71, 정신적 동등모드는 .72, 정서 조절은 .62로 나타났다. 표본 2 (337명의 정신 신체 클리닉 환자)에서는 자기성찰 거부 요인은 .64, 감정 자각은 .71, 정신적 동등모드는 .58, 정서 조절은 .54로 나타났다.

한국판 단축 공감 척도(Empathy Quotient Short Form, EQ-Short-K)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가 개발한 것을 Wakabayashi 등(2006)이 22문항으로 간편화한 척도로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Yoe(2012)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단일요인 구조로 된 한국판 단축 공감척도 11문항을 사용하였다. Yoe(2011)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88로 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한국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타당화한 Song(2014)의 40 문항을 사용하였다. 기본 형식은 부정형 질문이 사용되며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으로 채점하였다. 계획 및 조직화 곤란, 정서 통제 곤란, 행동 통제 곤란과 주의집중 곤란의 총 4개 하위 요인들로 구성된다. Song(2014)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 내적 일치도 지수인 Cronbach's  $\alpha$ 에서 만 16세 집단에서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아동용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Children Revised Version)

아동용 인지적 공감능력 테스트(Baron-Cohen et al., 2001)는 Baron-Cohen 등(2001)이 개발한 성인용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의 아동용 버전이다. 아동용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의 번안은 원칙도의 대표저자 Baron-Cohen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였다(2014년 4월). 감정 단어 번역은 연구팀에서 한 일차 번역은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영어권 거주자 1명이 역 번역을 한 후 최종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이 검사는 얼굴 영역 중 눈 주변에 초점을 맞춘 28개의 흑백 사진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 참가자는 사진에 제시된 4가지 단어 중 사진 속 사람의 생각 또는 감정을 가장 정확히 기술하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4개 중 3개의 단어는 정답을 방해하는 정신 상태에 대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단어만이 정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ttps://www.autismresearchcentre.com/arc\\_tests/](https://www.autismresearchcentre.com/arc_tests/)에서 제공하는 PDF파일을 인쇄하여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3과 AMOS 21을 사용하여 이루어 졌다. 정신화 15문항의 정규분포를 검증하기 위해 Kurtosis가 실시되었고 -2에서 +2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어 정상성이 입증되었다(Geroge & Mallery, 2010).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및 준거 타당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162명의 집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50명의 집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준거타당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적합도 지수는 카이자승값, CMIN/DF (2 이상이면 적합하지 않음) (Ulman, 2001), CFI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0.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08까지는 수용가능)와 AIC (값이 낮을수록 좋은 모델을 의미)를 택하여 사용하였다. 이밖에 준거타당도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해 정신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공감, 집행기능 곤란(계획 및 조직화, 행동통제, 정서통제, 주의집중력 하위 요인으로 구성)과 눈으로 마음읽기 변인들이 채택되었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분석

162명 집단을 대상으로 정신화 질문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Hausberg 등(2012)은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분석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추출된 각 요인들이 원래 요인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각 요인에 해당된 문항 내용들의 개연성이 부족하게 나타났다. 이에 주성분 분석의 경우 요인적재값의 크기가 실제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Snock & Gorsuch, 1989)를 참조하여 주축요인 추출방식과 프라맥스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보다 설명이 가능한 타당한 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 Table 1에 추출된 요인구조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요인분석에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감정이 점점 더 강력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문항이 4개 모든 요인에 고르게 낮은 부하량(-.210에서 .297)으로 할당되어 이 문항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4개 문항이 4개 요인에 할당되었는데 일부 문항은 Hausberg 등(2012)의 요인과 다르게 할당되었다. 그러나 각 요인의 기본적 속성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 내용과 Hausberg 등(2012)의 원 요인과 비교하여 요인 1은 정신동등모드 요인, 요인 2는 자기성찰 억제, 요인 3은 정서 조절, 요인 4는 감정 자각으로 대부분 유사한 명칭으로 명명하였다.

원 요인과 비교해 볼 때, '누군가 내 앞에서 하품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지루해 한다는 분명한 신호이다'가 자기성찰 거부 요인에서 정신동등모드 요인으로 변동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설명은 내 감정을 이해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서 조절 요인에서 자기성찰 거부 요인으로 변동되었다. 원래 감정 자각 요인에 해당되었던 '나는 신체적인 긴장이나 불쾌감이 너무 심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전까지는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종종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도 모두 자기성찰 거부 요인으로 변동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신동등모드에 해당되었던 '나에게서 사람 관계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문항은 정서 조절 요인으로 묶였으나 실제 문항 내용이 정서 조절과 연관성이 적고 나머지 2문항과의 의미 연관성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문항을 제외하였다. 결국 15문항에서 2문항을 제외한 최종 13문항을 선정하였다.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Table 1.** *Explorative Factor Analysis Results*

|   |   | H   |        |        |        |        |
|---|---|-----|--------|--------|--------|--------|
| 12  | Often I feel threatened by the idea that someone could criticize or offend me   | III | .894   |        |        |        |
| 1   | If I expect to be criticized or offended, my fear increases more and more   | III | .687   |        |        |        |
| 13  | If someone yawns in my presence, that is a reliable sign that he is bored in my company                                   | I   | .402   |        |        |        |
| 4   | I only believe that someone really likes me a lot if I have enough realistic proof for it(e.g., a date, a gift or a hug). | III | .343   |        |        |        |
| 5   | Most of the time it is better not to feel anything  | I   |        | .715   |        |        |
| 2   | Explanations from others are of little assistance in understanding my feelings  | IV  |        | .547   |        |        |
| 8   | I tend to ignore feelings of physical tension or of discomfort until they compel my full attention.                       | II  |        | .520   |        |        |
| 15  | Often I don't even know what is happening inside of me.   | II  |        | .426   |        |        |
| 14  | Most of the time I don't feel like talking about my thoughts and feelings with others.                                    | I   |        | .336   |        |        |
| 10  | Sometimes I only become aware of my feelings in retrospect  | II  |        | .767   |        |        |
| 11  | Frequently it's difficult for me to perceive my feelings at their full intensity  | II  |        | .705   |        |        |
| 3   | Sometimes feelings are dangerous to me  | IV  |        |        | .618   |        |
| 6   | Often I can't control my feelings   | IV  |        |        | .618   |        |
| Initial total variance  |   |     | 4.100  | 1.560  | 1.195  | 1.121  |
| Initial % of Variance   |   |     | 31.538 | 11.997 | 9.191  | 8.625  |
| Initial Cumulative %  |   |     | 31.538 | 43.535 | 52.727 | 61.352 |
| KMO = .797, Bartlett's Test ( $\chi^2 = 580.964, df = 78, p < .001$ ) |   |     |        |        |        |        |

Note. Extraction Method = Principal Axis Factoring; Rotation Method = Pro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H = Hausberg et al.(2012)'s factors; I = Refusing self-reflection; II = Emotional Awareness; III = Psychic Equivalence mode; IV = Regulation of affect.

**Table 2.** *Regression Weights of Each Items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       |      |                           | Estimate | S.E. | C.R.  | p    |
|-------|------|---------------------------|----------|------|-------|------|
| MZQ4  | <--- | Psychic_Equivalence       | 1.000    |      |       |      |
| MZQ13 | <--- | Psychic_Equivalence       | .801     | .258 | 3.112 | .002 |
| MZQ1  | <--- | Psychic_Equivalence       | 2.129    | .536 | 3.971 | ***  |
| MZQ12 | <--- | Psychic_Equivalence       | 2.394    | .592 | 4.044 | ***  |
| MZQ14 | <--- | Inhibited_Self_Reflection | 1.000    |      |       |      |
| MZQ15 | <--- | Inhibited_Self_Reflection | 1.240    | .222 | 5.595 | ***  |
| MZQ8  | <--- | Inhibited_Self_Reflection | .919     | .200 | 4.594 | ***  |
| MZQ2  | <--- | Inhibited_Self_Reflection | .557     | .147 | 3.780 | ***  |
| MZQ5  | <--- | Inhibited_Self_Reflection | .962     | .196 | 4.901 | ***  |
| MZQ11 | <--- | Emotion_Awareness         | 1.000    |      |       |      |
| MZQ10 | <--- | Emotion_Awareness         | .870     | .125 | 6.959 | ***  |
| MZQ6  | <--- | Emotion_Regulation        | 1.000    |      |       |      |
| MZQ3  | <--- | Emotion_Regulation        | 1.575    | .336 | 4.681 | ***  |

\*\*\*p < .001.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4요인 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이 별도의 150명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4요인을 토대로 연구 모형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먼저 CMIN = 89.087, df = 58, p < .001, CMIN/DF = 1.510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인 2 미만에 해당되었다.

또한 TLI = .914, CFI = .935, RMSEA = .059로 모두 수용가능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연구모형에 대한 각 변인에 대한 회귀추정치가 Table 2에 제시되었고 연구 모형이 Figure 1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요인 모델을 경쟁모형으로 상정하였다. 정신화의 하위요인들의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변별이 어렵다는 점과 Fonagy 등(2016)에서 8개 문항을 단일 요인으로 설정한 점을 참조

하여 13개 문항이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되는 1요인 모형을 상정하였다. 경쟁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연구 모형이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경쟁 모형들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였으므로 1요인 모형의 경우, CMIN/DF 지수가 2.180으로 수용가능 범위를 벗어났다(Tabl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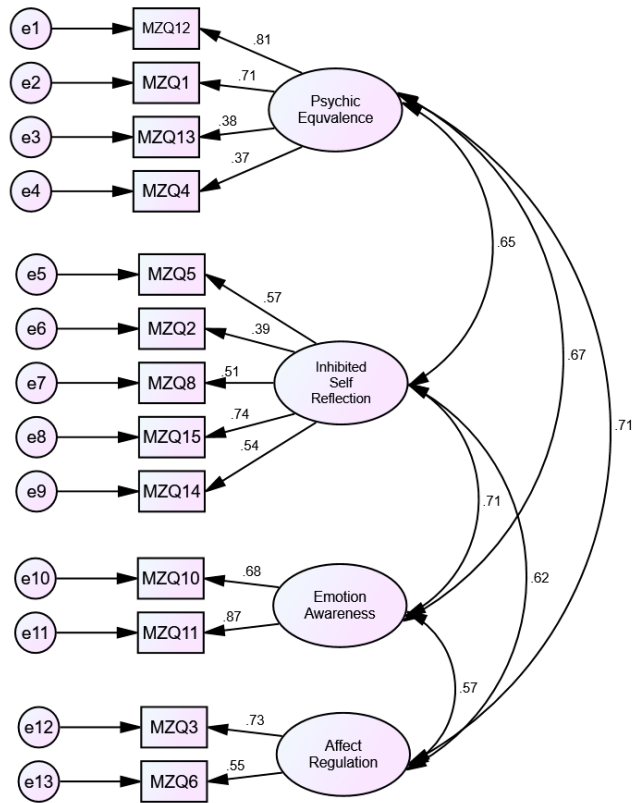


Figure 1. Four-factors model of mentalization questionnaire in the Korean adolescents.

Table 3. Model Fit Indexes between Competitive Models (N = 150)

|                              | CFI  | TLI  | RMSEA | $\chi^2$   | df | CMIN/DF | AIC     |
|------------------------------|------|------|-------|------------|----|---------|---------|
| Model 1 (Four-factors Model) | .935 | .914 | .059  | 89.087***  | 59 | 1.510   | 179.087 |
| Model 2 (One-factor model)   | .831 | .800 | .059  | 143.911*** | 66 | 2.180   |         |

\*\*\* $p < .001$ .

Table 4. Criterion Validity Analysis Result (N = 150)

|                           | EQ   | RMET  | EF-Plan/Organize | EF-Behavior Control | EF-Emotional Control | EF-Concentration |
|---------------------------|------|-------|------------------|---------------------|----------------------|------------------|
| Psychic Equivalence       | .152 | -.029 | -.048            | -.026               | .374**               | .008             |
| Inhibited Self-Reflection | .039 | -.075 | .129             | .265**              | .289**               | -.032            |
| Emotional Awareness       | .004 | -.043 | -.055            | .075                | .420**               | .095             |
| Affect Regulation         | .027 | .040  | .038             | .099                | .246**               | .072             |

\*\* $p < .01$ .

신뢰도

정신화 질문지 총 13문항에 대한 문항내적 일치도를 Cronbach's alpha를 통해 산출한 결과, .828을 나타냈다. 이 수치는 Hausberg 등(2012)의 .81보다 약간 더 높은 수치이다. 하위 요인별로 보면, 정신동등모드는 .637, 자기성찰거부는 .705, 정서조절은 .568, 감정자각은 .738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내적일치도 지수는 원 척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이거나 최소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준거타당도

준거 타당도 검증 결과,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4). 이론상 유사하지만 실제적으로 구분되는 변인으로 가정되는 공감 능력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유형의 공감능력 검사인 눈으로 마음 읽기 수행과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선행 고찰 연구들에서 정신화 능력은 정서 조절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고 제안한 바와 동일하게 집행기능 중 정서통제 어려움과 정신화의 4개 하위 요인들이 모두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밖에 자기성찰 억제 요인은 집행기능 중 행동통제 어려움과도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등학생 대상으로 Hausberg 등(2012)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정신화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원 척도와 동일한 4개 요인 구조를 얻었다. 그러나 각 요인 구조는 원 척도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기성찰거부 요인이 다른 구조를 나타냈다.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2개 문항이 제외되었다. 제외된 문항을 보면 먼저 원 척도에서 자기성찰 거부 요인에 해당되었던 ‘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감정이 점점 더 강렬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문항이 4개 모든 요인에 고르게 낮은 부하량 (-.210에서 .297)으로 할당되어 이 문항은 제외하였다. 또한 원 척도에서 정신동등모드에 해당되었던 ‘나에게서 사람 관계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문항은 본 연구에서는 정서 조절 요인으로 묶였으나 실제 문항 내용이 정서 조절과 연관성이 적고 나머지 2개 문항과의 내용 연관성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2개 문항이 제외되면서 정서 조절 요인과 감정 자각 요인은 문항 수는 감소하였으나 원 척도와 유사한 구조가 유지되었다.

이 밖에 자기성찰 거부에 해당되었던 ‘누군가 내 앞에서 하품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지루해 한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문항이 정신동등모드 요인으로 이동하였다. 이 문항은 상징능력 부족으로 인해 외부 현실과 내적 상태를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구조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정신동등모드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자기성찰 거부 요인보다는 정신동등모드에 오히려 적합한 문항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원 척도와 비교할 때 4개 요인 중 3개 요인의 구조는 유사하게 산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성찰 거부 요인 구조는 원 척도와 다른 구조를 나타냈다. 총 5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원 척도와 다르게 구성되었다. 원 척도에서 정서 조절 요인에 해당되었던 ‘다른 사람의 설명은 내 감정을 이해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항, 원 척도에서 감정 자각 요인에 해당되었던 ‘나는 신체적인 긴장이나 불쾌감이 너무 심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문항과 ‘종종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의 문항이 자기성찰 거부 요인에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낫다’, ‘대체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이나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편인 것 같다’는 두 개의 문항은 원 척도와 동일하게 자기성찰 거부 요인에 해당되었다.

원 척도의 요인 구조와 본 연구의 요인 구조의 차이는 Hausberg 등(2012)의 연구대상자가 17세에서 79세의 광범위한 정신과 혹은 정신신체 클리닉 외래 환자인데 비해 본 연구는 16-17세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를 우선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자기성찰의 개념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척도에서 다른 요인에 포함되었던 문항들의 내용을 볼 때, 자기성찰 거부 요인으로 묶인 5개 문항들은 자기 내적 상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감정에 압도되는 것이 두려워 감정을

차단하는 자기성찰 거부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다 엄밀히 살펴보면, 자기성찰 거부 요인은 정신화의 하위 요인으로 보기 보다는 정서 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신화 전체를 모두 포괄하는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다. 실제로 성찰기능과 정신화는 동일한 의미로 간주되어 사용되고 있다(Fonagy et al., 2016; Smaling, Hujbregts, van der Heijden, van Goozen, & Swaab, 2016).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신화 관련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서 추후 연구 진행 과정속에서 정신화 개념에 대한 정의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가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정신화를 연구하고 임상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임상가들은 정신화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고 변화되는지 면밀히 탐색하고 신뢰롭고 타당하게 적용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자기성찰 거부 요인의 타당화 실패의 원인을 자기성찰 기능과 정서처리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관련지어 볼 수도 있겠다. 정신화의 토대가 되는 애착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되었다(Solomon & Geoge, 1996). 이들이 인용한 바에 의하면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불안정-회피적 관계가 가장 일반적인 불안정 애착형태이나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는 불안정-양가적 애착이 가장 일반적인 불안정 애착형태로 나타났다(Ainsworth, et al., 1978; Grossmann & Grossmann, 1990; Miyake, Chen, & Campos, 1985; Sagi, 19990; Solomon & George, 1996에서 재인용). 최근 Tsai와 Lau(2013)는 정서 조절과 자기성찰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유럽계 미국인에 비해 실패한 대인관계 경험에 대한 자기성찰이후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화에 따라 정서처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감정을 억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비해 유럽계 미국인들은 자기감을 고양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최근 Song과 An(2017)의 연구에서는 심지어 동일한 동양 문화권에서도 정서처리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정신화 기반 평가와 치료법을 확립해 가기 위해서는 정신화 개념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4개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절하게 나타났다. 특히 타당도 분석을 통해 정신화가 인지적 과정이 아니고 정서적 처리과정이라는 점이 선행 연구들에서 주장한 바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한 공감 능력과 눈표정을 통해 감정을 추론해 내는 능력은 정신화와 어떠한 관련성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전두엽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집행기능 중 계획 및 조직화 어려움 및 주의집중 어려움과도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정신화 4개 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 것은 정서 통제에 어려움 변인 이었다. 이는 정신화는 인지적 과정으로 정의된 변인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직관적이고 재빠른 정서 반응이라고 한 선행 연구(Fonagy & Bateman, 2006)와 일치되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Hausberg 등(2012)의 요인구조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한국 고등학생 집단에서 얻지 못하였다. 특히 자기성찰 거부 요인은 원 척도와 상이한 요인구조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후속 연구 혹은 임상에서 활용할 때 많은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 설계에서 연구대상이 서울 강북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 국한되어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였으며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한 변인(외현화 행동 문제, 임상지표와의 상관, 정서 변인)들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였다. 추후 보다 타당한 정신화 개념정의를 토대로 대표성이 있는 표본집단과 충분한 준거변인들이 포함된 체계화된 연구설계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구조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정신화 척도를 한국 고등학생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정서 조절, 충동 및 공격성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청소년을 위한 심리학적 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 시발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 척도는 정신화에 초점을 맞춘 심리치료적 개입과 평가도구로서 다양한 심리치료 효과를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Baron-Cohen, S., Wheelwright, S., Hill, J., Raste, Y., & Plumb, I. (1997). The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evised version: A study with normal adults, and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functioning autis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 241-251.
- Baron-Cohen, S., Wheelwright, S., Spong, A., Scahill, V., & Lawson, J. (2001). Are intuitive physics and intuitive psychology independent? A test with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earning Disorders*, 5, 47-78.
- Bateman, A., & Fonagy, P. (2003). The development of an attachment based treatment program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ger Clinic*, 76, 187-211.
- Beaulieu-Pelletier, G., Bouchard, M. A., & Philippe, F. L. (2013). Mental States Task (MST): Development, validation, and correlates of a self-report measure of mentaliz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 671-695.
- Cha, H. M., & Kim, E. Y. (2016). Revisiting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Clinical implication of empirical findings and measurement of mentalizatio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General*, 35, 167-190.
- Choi, H. A. (2014). *The effects of traumatic experience and mentalization ability on the conduct disorder in the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J. H. (2016). *Narcissistic tendency and mental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Derryberry, D., & Rothbart, M. (1997). Reactive and effortful processes in the organization of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633-652.
- Fonagy, P. (2003). Psychoanalysis today. *World Psychiatry*, 2, 73-80.
- Fonagy, P., & Bateman, A. (2004). *Psychotherapy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onagy, P., & Bateman, A. (2006). Mechanisms of change in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of BP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 411-430.
- Fonagy, P., Luyten, P., Moulton-Perkins, A., Lee, Y. W., Warren, F., Howard, S., . . . Lowyck, B.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mentalizing: The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PLoS ONE*, 11, doi:10.1371/journal.pone.0158678
- Fonagy, P., Steele, H., & Steele,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62, 891-905.
- Fonagy, P., & Target, M. (2002). Early interven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Psychoanalytic Inquiry*, 22, 307-335.
- Fonagy, P., & Target, M. (2003). *Psychoanalytic Theories: Perspectives from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London: Whurr.
- Fuggle, P., Bevington, D., Cracknell, L., Hanley, J., Hare, S., Lincoln, J., . . . Zlotowitz, S. (2015). The Adolescent Mentalization-based Integrative Treatment (AMBIT) approach to outcome evaluation and manualization: Adopting a learning organization approach.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 419-435.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85).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George, D., & Mallery, P. (2010).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7.0 Update* (10th ed). Boston, MA: Pearson.
- Hausberg, M. C., Schulz, H., Piegler, T., Happach, C. G., Klöpfer, M., Brütt, A. L. . . . Andreas S. (2012). Is a self-rated instrument appropriate to assess mentalization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Development and first validation of the mentalization

- questionnaire (MZQ). *Psychotherapy Research*, 22, 699-709.
- Hwang, J. S., & Song, H. (2015). Peers harassment, mentalization and mind reading ability. *Psychotherapy: Multidisciplinary Approach*, 15, 107-128.
- Kemps, S. J., & Kooiman, C. G. (2015). Measuring mentalization: An attempt using the Reflective Functioning Rating Scale. *Tijdschr Psychiatr*, 57, 645-655.
- Luyten, P., & Fonagy, P. (2017). *The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Retrieved from <http://www.ucl.ac.uk/psychoanalysis/research/rfq/#4>
- Moon, S. J., Oh, S. Y., Lee, W. H., Hong, M. H., Min, J. W., Kim, B. S., ... Ban, G. H. (2012). The efficacy of the mentalization improvement program for adolescent for enhancement of mental health in school childre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3, 109-116.
- Perkins, A. (2010, March). *A new self-report measure of mentalization: The Reflective Function Questionnaire*. Presented at the UK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Ravenscar, UK.
- Rossouw, T. I., & Fonagy, P. (2012).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self-harm in adolesc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1, 1304-1313.
- Schnell, K., Bluschke, S., Konradt, B., & Walter, H. (2011). Functional relations of empathy and mentalizing: An fMRI study on the neural basis of cognitive empathy. *Neuroimage*, 15, 1743-1754.
- Smaling, H. J. A., Huijbregts, S. C. J., van der Heijden, K. B., van Goozen, S. H. M., & Swaab, H. (2016).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a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children's temperament and externalizing behavior.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44, 263-274.
- Snook, S. C., & Gorsuch, R. L. (1989). Component analysis versus common factor analysis: A Monte Carlo Study. *Psychological Bulletin*, 106, 148-154.
- Solomon, J., & George, C. (1996). Defining the caregiving system: Toward a theory of caregiving.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7, 183-197.
- Song, H. (2014). Validity of child-adolescent self-reporte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 121-137.
- Song, H., & An, J.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function and IQ in Korean children and the comparison with Chinese children. *Applied Neuropsychology: Child*, 6, 158-165.
- Stortelder, F., & Ploegmakers-Burg, M. (2010). Adolescence and the reorganization of infant development: A neuro-psychoanalytic model.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oanalysis and Dynamic Psychiatry*, 38, 503-531.
- Taubner, S., & Curth, C. (2013). Mentalization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early traumatic experiences and aggressive behaviors in adolescence. *Psihologija*, 46, 177-192.
- Tsai, W., & Lau, A. S. (2013). Cultur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during self-reflection on negative personal experiences. *Cognition and Emotion*, 27, 416-429.
- Ulman, J. B.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B.G. Tabachnic & L. S. Fidell (Eds.).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4th ed, pp 653-771).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Wakabayashi, A., Baron-Cohen, S., Wheelwright, S., Goldenfeld, N., Delaney, J., Fine, D., Smith, R., & Weil, L. (2006). Development of short forms of the Empathy Quotient (EQ-Short) and the Systemizing Quotient (SQ-Sh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929-940.
- Yoe, J. Y. (2012).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hort - form empathy scal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Industrial Science*, 13, 5356-5363.

## 국문초록

## 16-17세 한국 청소년의 정신화 척도 요인구조 탐색

송현주<sup>1</sup> · 최현아<sup>2</sup><sup>1</sup>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심리치료학과, <sup>2</sup>은평고등학교

발달 단계상 많은 취약성이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집단에서 정신화의 중요성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의 자기 보고식 정신화 척도인 Hausberg 등(2012)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정신화 척도를 한국 청소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전체 312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수집된 자료를 무선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첫번째 집단 162명은 EFA에, 두번째 집단 150명은 CFA, 신뢰도와 준거타당도 검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원 척도와 유사하게 4개 요인 모델이 추출되었으나 요인구조는 일부 다르게 나타났다. CFA 결과 수용가능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 및 하위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Hausberg 등(2012)에 비해 다소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준거 타당도 검증에서 공감척도와 RMET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집행기능 하위 요인 중 정서통제 어려움과 모든 하위 요인들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원 척도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 구조의 차이는 정신화의 근본적 개념적 모호성과 정서 처리에 대한 문화적 차이로 잠정적으로 귀인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준거 타당도 검증에 포함된 변인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정신화 척도 타당화 연구로서 한국 청소년의 정신화 평가와 심리치료적 개입의 시발점을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정신화, 청소년, 자기보고식 질문지, 요인구조